

[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특강]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번역가**가 되기를 꿈꾸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강연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정소영 박사(문학전문번역가) 초청 특강

강연 제목:

“문학번역의 (불)가능성 : 번역가의 딜레마”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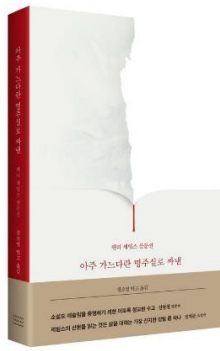
2024년/4월/5일(금) 12:00 - 13:15 (75분)

[장소]

정하상관 311호(J311)

[참여자격]

(영)문학과 번역에 관심이 많은 인문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강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소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에 관한 주제로 박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현대 영미소설과 여성주의에 관한 학술논문 수십 편을 발표하였다. 10년간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5년 대산문화재단 외국문학 번역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문학 전문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주로 19-20세기 영미권 소설과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 또는 편역해왔다.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실크 스타킹 한 켤레: 19, 20세기 영미여성작가 단편선』, 『십자가 위의 악마』,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아닌가: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사라진 모든 열정』, 『루시』, 『애니 존』, 『어떻게 지내요』, 『대사들』, 『일곱 박공의 집』, 『유도라 웰티 단편선』, 『웃음과 비탄의 거래: 마크 트웨인 산문선』,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로 짜낸: 헨리 제임스 산문선』 등이 있다. 문학작품 외에 『전쟁과 가족』,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와 같은 인문교양 서적도 번역하였다.



SOGANG UNIVERSITY

Division of English